

구름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1년차 개발자]

현재 1년 차 개발자로서 프론트엔드 개발 경험을 쌓아왔으며, 주로 JavaScript와 React를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엔드 개발 분야에서도 Node.js를 이용하여 API를 개발하고, MongoDB와 Firebase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개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전 근무한 스타트업에서는 회사의 특성상 기획부터 시작하여 디자인, 그리고 개발까지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협업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개발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부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창조성을 발휘하면 뛰어난 결과물이 탄생한다"입니다. 실제로 세부적인 부분을 놓쳐서 시행착오를 겪은 적도 있었고, 어떤 식으로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원동기]

비전공자로서 개발자가 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공부하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누군가가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할 때 정확한 길 안내서 같은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해 왔었습니다. 구름의 "모두가 개발자가 된다"는 비전에 깊이 공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나 AI와 SW 개발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구름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특히 K-디지털 플랫폼인 '구름스퀘어'와 클라우드 기반 학습 관리시스템 '크래폴린IDE'는 교육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로, 구름의 교육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구름의 노력을 통해 누구나 IT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AI·SW 에듀테크 분야에서 구름과 함께 발전하는 전문 인재로서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나의 강점

[솔루션 및 웹 개발 경험]

이전 프로젝트에서는 솔루션 기반의 웹 개발에 주력하여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해당 경험을 통해서 얻게된 강점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웹서비스 구축 능력입니다. 기존의 OCR 사업에서는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웹서비스로 구현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API 개발을 통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원활한 연동과 데이터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객 및 파트너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전 근무에서는 영업지원팀의 업무를 웹으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업무 참관과 관련 업무를 직접 해봄으로써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중간에는 추가 요구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 노력 끝에 영업지원팀이 실제로 사용하는 웹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되었고, 가독성이 향상되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제 강점은 기술적인 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학습과 개선을 통해 업무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3. 어려웠던 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새로움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

회사에서 하는 모든업무는 저에게는 어려움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입사 전 React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며 6개월간의 국비지원과정을 통한 HTML, CSS, 기초 JavaScript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사한 회사의 비대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 파악과 디자인 수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OCR 사업을 진행하면서 웹사이트를 처음부터 제작해야 하는 프론트엔드 개발 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는 초기에는 막연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이걸 해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제작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진행하면서 개발해야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영업지원

팀과 논의하고, 시안을 제작하면서 컨펌을 받았습니다. 매일 퇴근 후에 React와 JavaScript에 관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가며 적극적으로 학습에 힘쓰며 노력하였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며 공부를 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도 해보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백엔드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직면했을 때, 백엔드 개발자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mongoDB에 연결만 해보자는 생각이었지만 어느새 node.js에 대해서 알아보며 필요한 API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기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혼자서 대량의 데이터를 전산화시키는 데 성공하며 이는 팀 내에서의 공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얻은 경험은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독립적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기술도 함께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움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발전시켰습니다.